

# 김세영, LPGA 투어 펠리컨 챔피언십 우승...통산 12승·상금 1위

한국인 LPGA 통산우승 역대 3위에 올라

올해 선수·평균타수·다승 부분 1위 등극

김세영(27)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펠리컨 챔피언십(총상금 150만달러)에서 우승을 거머쥐었다.

김세영은 23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벨에어의 펠리컨 골프클럽(파70)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버디 3개, 보기 3개를 쳐 이븐파 70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14언더파 266타를 친 김

세영은 엘리 맥도널드(미국)를 제치고 시즌 2승을 달성했다.

통산 12승을 올린 김세영은 신지애(11승)를 제치고 역대 한국인 다승 부문에서도 3위에 올라섰다.

다승 1위는 박세리(25승), 2위는 박인비(20승)다.

올해의 선수 포인트에서도 106점을 기록해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상금 22만5000달러를 추가한 김세

영은 시즌 상금 113만3219달러(한화 약 12억6000만원)를 기록해 1위에 올라섰다.

평균 타수 부문도 1위를 유지했고, 다승 공동 1위로 뛰어 올랐다.

이날 김세영은 5타차의 여유를 갖고 마지막 라운드를 치렀다.

1번홀을 버디로 시작한 김세영은 2번홀에서 곧바로 보기를 범했다.

6번홀에서 버디로 타수를 만회한 김세영은 9번홀에서 다시 보기를 기록해 맥도널드에 3타차로 추격을 허용했다.

김세영은 14번홀에서 까다로운 버디 퍼트에 성공해 맥도널드의 추격에

서 벗어났다.

이후 김세영이 파 세이브를 하는 사이에 맥도널드가 16번홀에서 보기를 범해 사실상 우승자가 갈랐다.

맥도널드는 11언더파 269타로 준우승에 머물렀다.

박희영(33)은 최종합계 1언더파 279타를 기록해 공동 15위에 올랐다. 전인지(26)와 허미정(31)은 이븐파 280타로 공동 20위에 자리했다.

이번 시즌 처음 LPGA 투어 무대에 나선 세계랭킹 1위 고진영(25)은 3오버파 283타를 쳐 공동 34위에 그쳤다.

뉴시스



## 김세영 “올림픽 금대신 세계랭킹 1위 목표”

올림픽 금도전 “내년에도 가능할지 모르겠다”



김세영(27)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펠리컨 챔피언십(총상금 150만달러)에서 우승을 차지한 후 세계랭킹 1위에 대한 의욕을 드러냈다.

김세영은 23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벨에어의 펠리컨 골프클럽(파70)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버디 3개, 보기 3개를 쳐 이븐파 70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14언더파 266타를 친 김세영은 엘리 맥도널드(미국)를 3타차

로 제치고 시즌 2승을 달성했다.

통산 12승을 올린 김세영은 신지애(11승)를 제치고 역대 한국인 다승 부문에서도 3위에 올라섰다.

올해의 선수 포인트, 시즌 상금 부문에서 1위를 탈환했다.

평균 타수 부문은 1위를 유지했고, 다승 공동 1위로 뛰어 올랐다.

초대 챔피언이 된 김세영은 “오늘 우승하게 돼서 너무 기분 좋다.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하고 나서 곧바로 우

승을 해서 의미가 남다른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세계랭킹 1위에 대한 질문에 “당초 올해 목표는 올림픽 금메달이었는데 올림픽이 연기됐다. 현재는 세계랭킹 1위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목표 중 하나”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도쿄 올림픽 출전과 금메달 도전은 “아마도 내년에 가능할 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많은 동료들이 축하를 해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했다.

김세영은 “동료 선수들이 샴페인을 부어주었는데,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다른 동료 선수들도 빨리 우승해서 나도 샴페인을 부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마지막 날 14번홀이 승부처라고 설명했다. 김세영은 14번홀에서 까다로운 버디 퍼트를 잡았다.

김세영은 “9번홀을 플레이한 후 감이 좋지 않아서 조금 불안했다. 아무래도 마지막 날 그렇게 흘러가면 조금 더 힘들다. 흐름이 좋지 않았지만 14번 홀에서 버디를 한 후로 2위와 타수차가 나서 안정감을 느꼈던 것 같다”고 기뻐했다.

뉴시스

## 경남 설기현 “방심 없다” vs 대전 조민국 “이길 때 됐다”

K리그2 3위 경남-4위 대전 내일 준PO 맞대결

프로축구 K리그1(1부리그) 승격을 향한 첫 관문인 K리그2 경남FC와 대전하나시티즌이 자신 있는 출사표를 던졌다.

대한축구협회는 23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하나원큐 K리그2 2020 준플레이오프(PO) 미디어데이를 개최하고 양 팀 감독과 주요 선수의 각

오를 전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비대면 화상으로 진행됐다.

경남과 대전은 오는 25일 오후 7시 창원축구센터에서 K리그2 준PO를 치른다. 다만 승부로 비길 경우 정규리그 순위가 높은 3위 경남이 승리한다.

경남은 지난 21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대전과의 K리그2 정규리그 최종 27라운드에서 도동현의 결승골로 1-0 승리하며 승점 39점으로 4위 대전, 5위 서울이랜드와 동률을 이뤘으나, 다득점에서 앞서 3위를 차지했다. 대전은 4위에 올랐다.

올 시즌은 K리그1 소속 상주 상무가 연고 협약 종료로 자동 강등됐다. K리그1은 상주와 함께 최하위 12위에 머문 부산 아이파크가 K리그2로 내려갔다.

이에 따라 K리그1 11위팀과 K리그2 2 플레이오프 승리 팀이 만나는 승강 플레이오프는 하지 않고, K리그2 플레이오프 승리 팀이 K리그1로 직행한다. 앞서 K리그2 우승팀인 제주 유나이티드는 승격이 확정됐다.

경남과 대전의 준PO 승자는 오는 29일 오후 3시 K리그2 정규리그 2위 수원FC와 수원종합운동장에서 1부 승격 티켓의 주인공을 결정한다.

홈에서 준PO를 앞둔 설기현 경남 감독은 “어렵게 올라온 만큼 플레이오프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맞선 조민국 대전 감독대행은 “홈에서 준플레이오프를 치르지 못해 어렵지만, 원정에서 경남 정크스를 반드시 깨겠다”라고 각오를 보였다.

준PO 최대 변수는 대전의 ‘외인 특급’ 안드레의 결장이다. 경고 누적으로 경남전에 뛸 수 없다.

조 감독대행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말이 생각한다. 대전에는 아직 12명의 공격수가 준비돼 있다”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면서 “에비뉴, 바이오, 김승섭 등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설 감독은 “안드레의 결장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축구는 1명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조심스러웠다.

유리한 건 홈팀 경남이다. 이번 경기에서 비기거나 해도 PO 진출이 확정된다.

설 감독은 “비겨도 되는 상황에서 지키는 게 더 어렵다. 때로는 독이 된다. 지난 대전전 승리가 심리적으로 자신감을 줄 것이다. 안심하게 생각하면 어려운 경기가 될 수 있다. 반드시 이겨서 플레이오프로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조 감독대행은 “경남도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심리적으로 경남을 다급하게 할 생각이 없다”라고 했다.

올해 경남 지휘봉을 잡은 설 감독은 데뷔 첫해 준PO 진출이란 성과를 냈다. 그는 “과거 잉글랜드 2부리그 올버튼에서 뛰 때에도 쉽게 플레이오프에 못 간 적이 있다. 이번엔 감독으로서 준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부담과 긴장은 없다. 최대한 즐기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은 이번 시즌 경남전 승리가 없다. 조 감독대행은 “올해 한 번도 경남을 이기지 못했다. 감독을 하면서 정크스가 없었는데, 이번에 생겼다”면서



프로축구 K리그2 준플레이오프(PO) 미디어데이. (사진=프로축구연맹 제공)

“하지만 이제 상대의 장단점을 파악했다”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설 감독은 대전에서 경계해야 할 선수로 에비뉴, 바이오 등 외국인 선수들을 꼽았다. 그는 “안드레가 못 나와 다행이지만, 다른 용병들도 강하다”라고 설명했다.

조 감독대행은 “백성동에게 슈팅 찬스를 주면 안 된다. 최근엔 마크를 잘 해서 실점을 안 했는데, 이번에도 잘 막아야 한다. 그러면 에비뉴, 바이오가 해결해줄 것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백성동을 대전으로 데려오고 싶은 선수로 꼽았다. 이에 설 감독은 안드레를 지목했다.

양 감독은 지난 2018 대학총계연맹전 결승전에서 만난 경험이 있다. 당시엔 설 감독의 성공관대가 조 감독대행의 청주대를 승부처기 끝에 꺾고 우승했다.

조 감독대행은 “설 감독은 젊은 지도자로서 시대 흐름에 맞는 모습을 보여줬다. 또 프로에서도 좋은 모습을 선보였다. 좋아하는 후배이자 제자다. 앞으로도 좋은 감독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광주시체육회는 광주도시공사여자핸드볼팀이 28일 청주 국민생활관(SK호크스 아레나)에서 열리는 SK슈가글라이더즈와의 첫 경기를 시작으로 '2020~2021 SK핸드볼코리아리그' 대장정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사진=광주시체육회 제공)

## 광주도시공사여자핸드볼 'SK핸드볼코리아리그' 출격

28일 청주서 SK슈가글라이더즈와 첫 경기

신인 선수 보강과 훈련을 마친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이 핸드볼코리아리그에 출격한다.

광주시체육회는 광주도시공사여자핸드볼팀이 오는 28일 청주 국민생활관(SK호크스 아레나)에서 열리는 SK슈가글라이더즈와의 첫 경기를 시작으로 '2020~2021 SK핸드볼코리아리그' 대장정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광주도시공사여자핸드볼은 지난 시즌 창단 이후 최초로 4승을 거둬 꼴찌팀 반란을 일으켰으며 올해는 전구단 상대 1승을 목표로 출사표를 던졌다.

올해 FA 대어로 뽑힌 강경민(CB)

은 광주도시공사와 다시 한번 의기투합하기로 했으며 지난 시즌 새로 영입한 전 국가대표 출신인 원선필(PV)과 송해림(CB/LB)은 팀의 승리 사냥에 힘을 보탠다.

지난 리그에서 어깨 부상을 당한 송해림은 최근까지 재활치료를 집중하며 부상을 털어냈다.

현재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 팀 전지훈련에서 성과도 거뒀다. 천안과 청주, 익산에서 펼쳐진 전지훈련을 통해 경기력과 팀워크가 한 단계 도약했으며 첫 격전지에서 훈련을 펼쳐 경기장 적응도 마쳤다.

김미희기자

## 박한이, 코치로 삼성 돌아온다...1년 6개월만에 복귀

2019년 5월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 적발...자진해서 은퇴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 탓에 허망하게 은퇴했던 박한이(41)가 지도자로 삼성 라이온즈에 돌아온다. 삼성 관계자는 23일 박한이가 코치로 삼성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박한이는 삼성을 대표하는 프랜차

이즈 스타였다. 2001년 삼성 유니폼을 입고 KBO리그 무대에 데뷔한 박한이는 2019년까지 19년 동안 삼성에서만 뛰었다.

그는 삼성에서 무려 7개의 우승반지(2002·2005·2006·2011·2012·2013·2014년)를 품에 안았다.

박한이는 꾸준함의 대명사였다. 데뷔 첫 해인 2001년 117개의 안타를 친 것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16년 연속 세 자릿수 안타를 때려냈다.

통산 2174안타를 쳐 역대 안타 4위에 올랐다. 지난해 5월27일 자니를 등교시킨 뒤 귀가하다 접촉 사고가 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매뉴얼에 따라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65%로 측

정됐다.

전날 늦은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아침 운전대를 잡은 것이 화근이었다. ‘숙취 운전’이었다.

박한이는 곧바로 “책임을 지겠다”며 은퇴를 선언했다. 박한이는 은퇴 선언과 KBO 징계 이후 1년 6개월 동안 성실회복활동을 소화했다. 라오스로 건너가 재능기부도 했다.

삼성 구단은 성실하게 봉사활동을 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박한이에 게 고심 끝에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박한이는 은퇴를 선언했지만, 2019년 11월까지 등록 선수로 남아있어 90경기 출전 정지 징계 중 89경기를 소화했다. 2021시즌 코치로 복귀하면 1경기 출전 정지 징계만 소화하면 된다.

서선욱기자